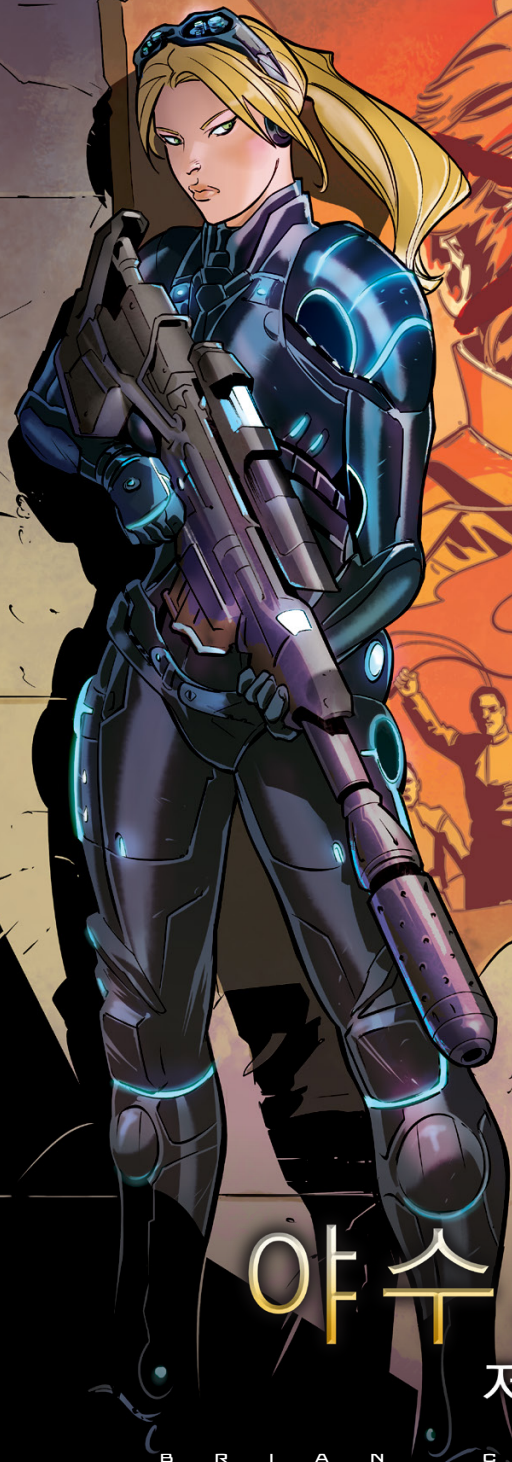


STARCRRAFT®

WARCHEST



야수의 본능

제 1 부

BRIAN
ALEXANDER

CARLOS
RODRÍGUEZ

SANDRA
MOLINA

STARCRRAFT WARCHEST

야수의 본능 제 1 부

BRIAN ALEXANDER 글

JUNE KIM 번역

CARLOS RODRÍGUEZ 그림

SANDRA MOLINA 채색

JIHYE SOPHIA HONG 식자

MATT BURNS 편집자
ALLISON IRONS

PAUL MORRISSEY 수석 편집자

CARLOS RODRÍGUEZ 표지
SANDRA MOLINA

JOHN J. HILL 그래픽 디자인

KEVIN DONG 크리에이티브 자문
CHRIS FUGATE
GEORGE KRSTIC
ROB MCNAUGHTON
RYAN SCHUTTER

MADI BUCKINGHAM 세계관 자문
SEAN COPELAND
JUSTIN PARKER

FELICE HUANG 프로듀서
PABLO A. LLOREDA
BRIE MESSINA
TIM MORTEN
ELENA NIKORA

BYRON PARNELL 글로벌 라이선싱 디렉터

DAVID SEEHOLZER 크리에이티브 개발 디렉터

DAVID MACHO-GÓMEZ 도움 주신 분

기어 스토어에서 다른 블리자드 상품을 살펴보세요.
GEAR.BUZZARD.COM



STARCRRAFT: WAR CHEST - 야수의 본능 제 1부 © 2019 Blizzard Entertainment, Inc. All rights reserved. StarCraft and Blizzard Entertainment are trademarks and/or registered trademarks of Blizzard Entertainment, Inc., in the U.S. and/or other countries.

BLIZZARD
ENTERTAINMENT



좋았어, 도니...
할 수 있어.
5, 4, 3,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도니
버밀리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레이너
특공대의 사면
소식입니다.

화해의 손길일까요
아니면 대재앙의
전조일까요?

The DONNY VERMILLION Show



사실, 발레리안 황제의
자유방임주의가 수많은
테러범들을 자유롭게
활개치게 만들었습니다...

노바 테라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노바는 최근
아스파에서 목격되었는데,
강직한 자치령 장교였던
호가스 함장의 암살을
도왔습니다.



믿기 힘든
비극이었죠.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내일은 우리의 명예로운 지도자
아크튜러스 맨스크 황제 폐하의
추모일입니다. 가장 화려한
시절에 삶을 마감하신...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 같군요.
저는 도니 버밀리언...

황제
...이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후

아우구스투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나는 혼신을
다해 일했는데,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되다니.

조롱당하고,
놀림당하고,
버림받고...



사람들이
도니 버밀리온은
정치 선전꾼이라고
하더라고. 국가의 도구.
앞잡이.



그들이 틀렸다는 걸
반드시 증명할 거야.
그들 모두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쿨쿨...



한 개의...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최고의
자리에 오를
기회를 찾겠어...

찰칵

이봐, 도니...
자네가 좋아할
특종거리가
하나 있는데.

...아니면
기회가 날
찾아오거나!

나흘 후... 자치령 변방 구역.

그래서, 우리가
향하는 곳이...

타르타루스.



그래, 타르타루스.
자네 얘기를 따라 이렇게
멀리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자세히 좀 얘기해 주지?



음... 사실 꽤
오랫동안 여기서
조류를 운반해주는
일을 해왔어.

보수가 째깍해서,
그냥 아무 것도
묻지 않았지.



마지막 작업 때,
궤도 방어 시스템
비슷한 뭔가가 나를
우주로 완전히
날려버릴 뻔했지.

식민지에 통신을
보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더라고.
이상하지 않아?

그게 말이야... 내가
UNN에서 일했을 때도,
그곳에 대한
얘기는 철저히
금기시하더라고.

늙은 멍스크가
우릴 위한 뭔가를
숨겨둔 걸까?

그게 바로
내가 알아내려고
하는 거라고, 친구.





아는지 모르겠지만, 자네가 내 목숨을 구했어.

내가?

클럭

전쟁 당시에 말이야. 마음씨 여린 사령관이 내가 "무모한 공격성"을 지녔다며 전선에서 제외시켰버렸지.



내가 외계 생명체를 죽이는 걸 너무 즐겼구나.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나 자신에게 말했어... 도니 버밀리언은 철대로 그 무엇도 정의를 가로막지 못하게 할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사령관한테 총알을 몇 발 박아줬지. 문제 해결.

자네가 아니었으면 방아쇠를 당길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라고.



꿀꺽

그거참... 감동적인 이야기군.



열 세 시간 뒤...

버밀리언 승객님,
타르다루스에
도착했습니다.

스캔을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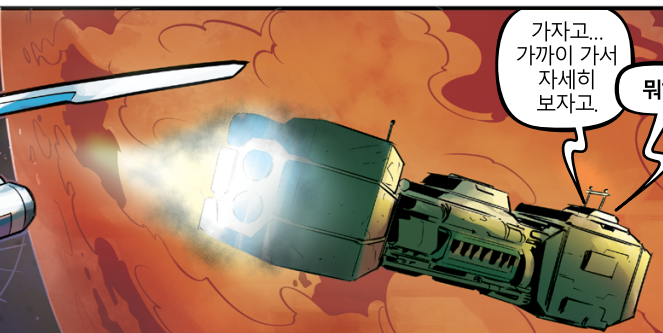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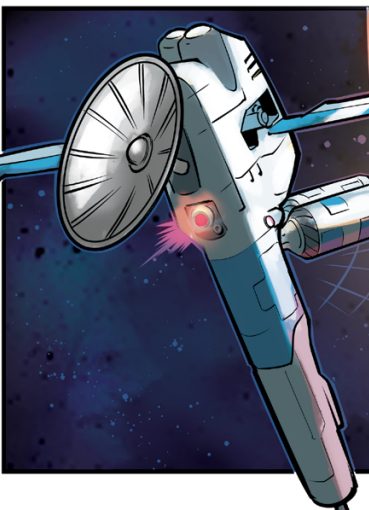


음, 바로 저기
문제가 보이는군.
저그가 사방에
들끓고 있어!



저그에 관한
얘기는 전혀
없었잖아!

전에는 본 적
없으니까. 놈들이
순식간에 침입한
모양이야.



가자고...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자고.

뭐?!



비용

비용

비용

비용

후퇴해
이 멍청한!

특종을
원했잖아,
아니야?

목숨을
바칠 정도는
아니라고!

어서! 포탑에
올라타서 엄호
사격을 날리라고!

잠깐...



이게
포탑이면...
포는 어디 있지?



자네가 늘 말하던 대로야.
특종이 이끄는 곳으로
어디든 나아간다.

직접 가서 확인해 봐.
내가 놈들의
시선을 끌 테니.

멩스크 영감님을
기쁘게 해드리자고!



안 돼, 안 돼,
안 돼!



콰콰콰콰



조금 떨어진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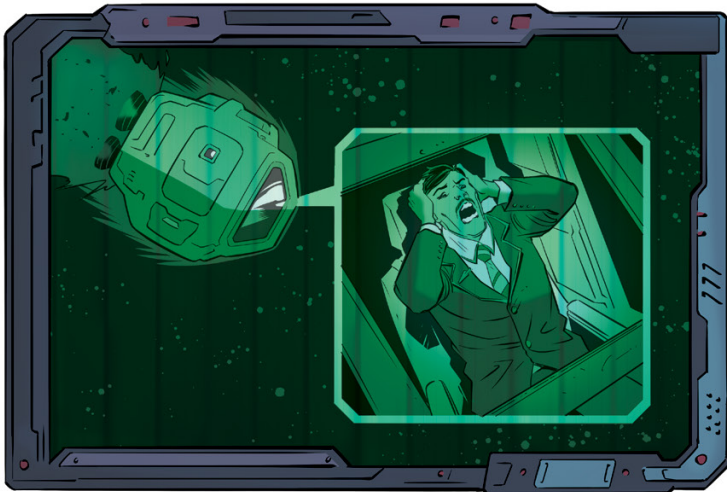
노바, 와서
이거 좀
봐야겠는데.

기다려봐.
나 이제 지상으로
내려가야 되거든.

누군
안 가는 줄
아냐.



누가 있다고?
이곳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을 텐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다음 편에 계속...